

연 중 제 15 주 일

기도서 P. 389 C해

1독(신 명 30, 10-14절)
 2독(골 로 1, 15-20절)
 복음(루 가 10, 25-37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정 승 협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 론 □



사랑의 규범

박 성 운 신부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다시 다사다난한 일손을 멈추고 영원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포부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묵상주제는 사랑의 규범입니다. 제 눈으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한 복음사가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는 오늘의 복음에서 실례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노상에서 강도를 맞아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그에게 참다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사랑을 베풀것 같이 거리의 약장수처럼 의처대는 저 성직자, 교직자, 지도자, 또는 우리가 아닌 그 당시 지독한 이단자로, 이국인으로 낙인 찍힌 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약장수 노릇을 해온 저 바리사이처럼 회절한 무덤, 사기꾼이나 되지 않았는지...? 이 얼마나 절면피하고 가소로운 인간 노릇을 했던 말인가. 이런 부류를 그리스도는 단호히 힐책하시고 또한 단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저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불우한 이웃에게 뛰어듭니다. 즉 그에게 동화(同化)합시다. 이것은 성아우구스티노의 저 유명한 말씀인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바를 행하라"(Ama et fec quod vis)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규범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았으니 외치지말고 과감히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오늘의 실례로써, 불우한 이웃이 누구이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적을 또한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 하신 사랑의 실천방법도 잘 알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다만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시 간부터 용감하고 과감하게 또 끈질기게 누구든지, 어디 서든지, 어느 때든지 행동할 수 있고 사랑을 불사르기 위하여 다음 세가지를 착실히 실천합니다.

1. 친 절
2. 관 용
3. 봉사...

사랑 자체이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시고 이웃을 활활 태우게 하소서.

(팔마 전주교회 주임신부)



물음을 듣는다.

「한반도에 가톨릭이 전래된 지 200년. 박해 속에서 순교 선혈을 띠고 일어나 개화기의 혼돈과 일제침략의 수탈을 헤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난세를 살아왔다. 한국 가톨릭이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도 결코 안이한 것은 아니다. 다원화된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현금의 한국 가톨릭은 한민족의 구원을 위한 소명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민족의 눈 앞에 드러난 가톨릭의 모습은 어떠하며, 가톨릭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려는 우리는 오늘 한국 사회의 이러한 물음에 겸허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야된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먼저 가혹하리만큼 신랄한 자기비판과 반성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가 발행하는 사목(司牧)지 52호의 권두언 <한국 사회의 물음을 듣는다>의 일부이다. 사목誌는 특집으로 <한국 가톨릭에 바란다>는 비가톨릭 인사들의 고견을 실고 있다.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할 문제라고 여긴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一方通行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나만 옳다는 자기중심의 생활방식이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제 의견만을 말하고, 그대로 따라 주기를 바란다.

부통으로 매스컴은 일방통행식이어서 他人指向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매스컴을 타는 광고는 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 그들의 요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말한다. 물음을 듣고 답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제 말만 하지 말자. 물음을 듣고, 그리고 답하자. 듣기 위해서 학급회의(H, R)도, 가족회의도 직원회의도 국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숲 정 이 산책



하늘도 울었다



□성서교실 ④□

에 페 소 서

김 창 수 부제

내용과 신학 에페소 서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구원을 천명하는 고리편(1, 3~3, 21)과 신앙의 일치, 각자의 지위에 맞는 생활, 가정생활에 있어 자자가 해야 할 의무와 규범을 다루는 율리편(4, 1~6, 2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간은 그리스도의 구세사적 의의, 즉 모든 인간과 우주 전체에 미치는 구원의 힘을 강조한다(3, 18).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시조요 또한 으뜸이며(5, 23), 이 새 인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인 교회(1, 10)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특수 사명은 종교적으로 분열된 인류 즉 유대인과 외교인, 이 두 백성을 합일시키는데 있으니 이미 그리스도는 이 두 백성을 갈라놓은 장벽을 무너뜨렸으며(2, 15 이하), 하나님 교회 안에 인류를 재일치시켰다(4, 2~16). 교회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와 인류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며, 신자 개개인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결된다. 따라서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 것이다.

요약한다면, 에페소서의 주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몸과 머리의 관계(1, 23), 아내와 남편의 관계(5, 23~32)와 같다는 것이다.

수신인과 저술 동기 이 서간의 수신인은 소아시아의 항구도시인 에페소에 설립된 교회(1, 1)로 되어 있으나, 「에페소」라는 수신인 장소 규정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에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페소서는 어느 일정한 지방이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지방의 교회들을 상대로 쓰여진 회람 서간으로서, 마르티논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 라오디체아 지방 교회에 보내졌고, 후에 「에페소」서간으로 명명된 이유는 에페소가 소아시아 지방 교회 단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저술 동기는 사도 바오로의 교훈을 통하여 하느님의 구세 계획의 위대한 신비가 신자들에게 밝혀지고, 또 이 서간을 통하여 신자들이 신앙과 사랑안에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저자 및 저술 연대: 제일 오래된 고대 문헌에는 이 서간이 바오로의 서간이라고 전해오나, 오늘날 바오로의 친저성을 거부하는 설들이 있다. 이 설은 첫째, 바오로의 다른 서간에는 세말 사상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에페소서는 교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구원이 실현된다는 점(1, 10)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 다른 서간에서 볼 수 없는 교회에 대한 교의의 발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1, 2 3, 4, 12, 16)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1, 22, 4, 15)-을 반대의 논거로 삼고 있으나, 이미 이러한 사상들은 바오로의 친저성이 인정될 로마서 12, 5, 코린 전 10, 17, 12, 1 코린 후. 5, 18 에 예거되어 있다.

또한 2세기 초의 교부인 이나시오나 팔리카르보는 에페소서의 바오로 친저성을 증언한 것으로 보아 이 서간은 서기 59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바오로가 쓴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여름밤에 띄우는 편지○



웃 음

한 국 인(도미니꼬)

배드로 형,

웃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한 번 웃어 보십시오, 처음엔 아마 웃는것이 아니라 일그러 질 것입니다. 허나 계속 웃으려고 하시면 점차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속부터 활짝 핀 웃음이 얼굴에 감돌 것입니다. 웃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기분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상대하는 남에게 기분 좋아지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느 사이엔지 미소를 많이 잃었습니다. 내 친구들,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는 진정 기쁜 미소가 흐르지는 않는 그들을 떠나면 나의 얼굴은 굳어집니다. 아니, 잔뜩 찌프러져 있습니다. 마음속으론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얼굴은 찌질 줄을 모릅니다. 잃어버린 나의 웃음을 찾기 위하여 혼자가 되면 자주 웃어 보았지만, 막상 모르는 이들이나 나와 오해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 있으면 마참가 지르 찌프러졌었습니다. 요즘은 항상 웃으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인지 비교적 평온한 마음과 얼굴로 모르는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모르는 사이 일지라도 부드럽고 기분좋은 미소를 짓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기분좋은 뿐 아니라, 자그만한 미소로 다른 사람까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서는 황급히 손해라도 봤다는듯이 얼굴표정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을 만나도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칩니다. 한번 웃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까? 웃는다고 누가 벌금을 내라고 합니까? 웃는다고 도대체 어떤 손해를 볼까 왜 웃지 않으십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이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에게 웃으려면 약간 결연쩍겠지요. 그렇지만 웃어 주십시오. 웃음은 가장 작은 행위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행일 것입니다.

웃음 중에서 가장 기분 좋게 느껴지는 웃음은 어린아이들의 웃는 모습입니다. 티 하나없이 맑은 눈동자를 풀리며 귀엽게 웃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질 줄을 느낄 것입니다. 웃음으로써 또, 웃는 것을 볼으로써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웃음도 있습니다. 비웃음과 만사가 치밀하게 계산된 웃음입니다. 이렇게 웃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엇잡아집니다. 어떤 목적하에 특정한 상대에게 웃는 웃음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순수한 웃음을 되찾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을 바라보는 상대에게 살며시 웃어 주십시오.

웃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게, 또 당신과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부드럽게 웃어 주십시오. (덕진 분당)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령자매들의

보급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새로나왔다! 삼화운수 모델러 ☆

☆특징 - 무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 열전 100% 효력, 99% A.L인코트
-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합<각 가정에도 저렴한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성전과 비지땀』 (2)

최 한 철 (베드로·금산 본당)

이쯤되자 김회장의 가슴에는 공소건립의 불꽃이 일기 시작, 공사착수 준비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결과 백암리에 살다 공주에 가 살고 있는 교우 박 주연씨가 130평의 부지를 기꺼히 회사해 주었고 목재는 이웃 지방리 공소에서 기증해 주었으며 본당의 김 병환 주임신부는 선뜻 50만원의 지원을 약속해 주었다.

여기에 힘을 얻은 이들은 금년 봄 다시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16만원이란 돈을 모금, 드디어 총공사비 90만원이 소요되는 전쟁 20평건물의 대망의 공소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집 한채를 짓는데도 몇백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이고 보던 성전건립에 90만원이라면 너무도 초라한 금액. 이 돈으로는 성전의 어떠한 장식품이나 꾸밈도, 심지어 종가마저도 세울 수 없는 형편이지만 너무 오랜 세월 세월 성전건립에 한이 맺힌 이들에게는 이것만이라도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들은 이 돈으로 꼭 필요한 시멘트, 스테트등 자재만을 구입하고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아이들로 부터 노인애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낙네들은 것벽이를 등에 업은 채 자갈과 모래를 나르고 손수 벽돌을 찍어야만 했고 토수일 목수일까지도 자기들 손으로 해야만 했다. 이를 지켜본 마을 주민들도 너무도 뜨거운 정경에 감동하여 하루 이틀씩 노력봉사를 해 주는가 하면 경운기까지 동원, 자재를 실어 날라 주기도 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 또한 놀라울 정도였다.

본당 신자들 또한 너 나 할 것 없이 공소돕기 운동을 벌여 성금을 보내고 제대를 기증하고 성물을 보내주는 신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애정의 불꽃이 꺼질줄 모르고 있으며 특히 전주 전동성당 김 환철 주임신부는 「나의 이 조그마한 성의가 애쓰고 있는 금산본당 신자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준다면 큰 영광」이라며 당시 손가락에 끼고 다니시던 금반지를 빼어 보내주신 은정은 금산본당 신자들의 가슴 가슴마다에 뜨겁게 와 닿아 영원히 영원히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들의 성전건립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본당 신부로서 더욱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심정 안타까울 뿐이며 요번 공소건립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공소신자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본당 신자 및 여러 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김 병환 주임신부는 자못 이들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칭찬해 주었다.

이제 오는 7월 공사를 완료하고 8월 15일 성모 뫼소승천 대축일을 기하여 낙성식을 가질 예정에 있는 백암리 공소 신자들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한껏 가슴이 부풀어 어린애마냥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교당쯤도 있고 오늘도 피약별 아래 구슬같은 비지땀을 흘리며 벽돌을 한장 한장 쌓아 공사진척을 서두르고 있다.

구하는 자에게는 꼭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완공시키겠습니다. 이 산골에도 외로운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알아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써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할 줄 모르는 의지와 집념이 가득 담긴 얼굴에 구슬같은 땀방울을 주먹으로 연신 닦아내리며 김 철제 회장은 밝게 웃는다.

요십이 (206) 김병호



각종 농약, 비료, 비니루, 씨앗

원평 대일농약사

이영희 (다두)

☎ 원평 124번

원평 농업 협동 조합 앞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외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많이 찾아 주세요

삼성전자 군산판매장

대표 심 가타리나

군산시 중앙로 2가 89-1 ☎ 5000번

전주교회 우측

←역 군청 화신약국

↑ 경찰서 →

신혼삼성
예식장 전자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검정

뉴-타자학원

원장 신 송 무(바오로)

전화 ☎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동동 605-1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 태(베드로)

☎ 육교역 중앙 시장동

(전화 ☎ 4577)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세무서 지정업체
주문배수

봉천출판사

김 정 생(베드로)

전매청 오거리 ☎ 2699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
지
사
항

■ 김 영태(도민교) 신부님, 향년 63세로 지난 7월 4일 오후 9시 10분 자택에서 선종

감사합니다. 김 신부님 상장애절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족대표·교구장례 위원회-

- 1. 제 3 지구 청년 하기 수련회 개최(8월 1일~4일, 교산에서, 회비 700원)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 가톨릭 시보 구독자중 주소 변경 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520, 저노송동 601 가톨릭 시보 담당자 앞)
- 방송안내...문화방송(MBC)...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강 인찬 신부 방송
...서해방송(SBC)...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박 증신 신부 방송

(중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서김이 사도 회장 이복석

- 1. 꾸리아 월례회 : 10일 오후 2시, 강당
- 2. 젊은들의 모임 : 10일 오후 8시 20분, 강당
※ 청년회 합창단 주최, 젊은이들의 오락 시간 마련!
- 3. 삼지회 월례회 : 13일 <수> 오후 7시, 김정생씨 때
- 4. 본당신부 영명축일에 협조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5. 이사 가셨거나 오신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 되신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 6. 회합시간을 철저히 지킵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22,75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 1. 선교주일 : L, M, 간부회의
- 2. 반상회 : 5만 (12일), 6만 (13일), 7만 (14일), 8만 (15일) ※ 봉헌금통장 지참하고 반상회에 꼭 나오세요
- 3. 이주간 봉헌금 독려반 : 박장춘, 박종갑, 조동근 회장님
- 지난주 봉헌금 : 34,78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 1. 신용조합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장년들의 모임 : 오늘 저녁미사 후 (8시반)
- 3. 7월동안 <월-트> 저녁미사시간 : 8시 미사후 파티마 성모상 앞에서 묵주신공 바칩시다
- 4. 재속 형제회 청년회 임시총회 : 오늘 저녁미사후 재입원 선출 있으니 꼭 참석 바람
- 5. 성우회 야유회 : 17일, 많이 참석 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53,345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1. 귀염동이 학생들! 아동미사에 꼭 나오세요
- 2. 애령회에 2만원 (의명)회사! 감사합니다
- 3.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에 수고하시겠습니다
- 전준선, 남상용 전생님, 이경희 부녀회장님
- 지난주 봉헌금 : 74,26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보좌 신부 김용환 사도 회장 김용환

- 1. 새성당 상양식 : 미사후, 많은 기도와 협조바람
- 2. 미사시간에 늦지 않도록 합시다
- 3. 우리의 약속 조속 이행으로 주님의 성전 빨리 짓도록 합시다
- 4. 「가장 거룩한 사랑과 창조주의 신비」 성화 상영 : 13일 밤 8시, 외교인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참가금 100원)
- 5. 신축임금 감사 합니다 : 선우복, 이범수 (각 5천), 배명림 (4천), 이복주 (3천), 강영심 (2천), 총계 : 8,856,000원
- 지난주 봉헌금 : 46,371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석중

- 1. 사도회, 자모회, 장우회
- 2. 마리아 빨리 합창단 미사 (토요 특전미사 겸) 16일 <토> 밤 8시, 17일 <일> 8시반, 10시, 밤 8시
- 3. 야유회 : 성화회 (사전대), 성가정회 (금산, 월요일)
- 4. B, F (성서동지회) 공개회합 : 18일 저녁 8시
- 5. 새성당 건립 허가, 본격적 착수 (신입과 현금을...)
- 6. 자모회 50주년 기념사업 : 마사 엘 성모상
※ 기쁜 소식! 파티마 본부에서 성모상 기증
- 7. 신용 조합 월례회 : 14<목> 밤 8시 40분
- 지난주 봉헌금 : 113,220원
- ※ 새성당 건립 기금 : 전동-이안젤라(2만), 이창근(1만), 교리교사회(10만) J, O, C회 (5만) / 동안산동-정공덕 (5만), 배한수 (1만5천), 정평균, 이세시리아, 김혜레나(각1만) / 서안산동-석단수 (3만), 박사비나 (1만) / 풍남동-익명 (20만), 남명숙 (10만) 최테레사 (2만), 김정애, 차명수, 유재마 (각1만) / 정혜레나 (반지3돈) / 남노송동-김계순 (2만) / 중앙동-익명 (10만), 미스터유 씨동 (3만), 강안자 (1만) / 기타-부산 서신부, 김효덕, 정골름바, 경화중 (각1만), 김노아 (3만), 익명 (5만5천)
- 주계 : 971,500원, 금품 3돈
누계 : 26,935,000원, 금품 113돈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1. 미사시간 변경 : 12일 <화> 아침 5시 반(이날만), 13일 <수> 밤 8시 (이날만), 김훈 테레사 탈상
- 2. 주일학교에 자녀들 꼭 보내주세요
- 3. 봉헌금 (교부금) 속히 납부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37,745원